

AUTHOR 양금희

TITLE 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본 교육목회

IN 교육목회

Vol. 38 (2010): 100-107

개혁자 칼빈을 통해서 본 교육목회



양금화 • 교수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개신교 교육목회의 뿌리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개신교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인 칼빈을 비켜갈 수 없다. 물론 칼빈 당시에 '교육목회'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칼빈이 스스로를 교육목회자로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칼빈은 단지 그의 목회지였던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의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목회 전반에 걸쳐 수행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오늘날 개혁교회 교육목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칼빈이 추구하였던 종교개혁적 목회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교육목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과 그의 교육목회 실천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

1. 교육필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은 무엇보다 그의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인간을 “예수님과 의 온전한 연합”을 향한 도상의 존재로 이해하였다. 그는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만, 구원에 이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아직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는 도달하지 못한 ‘약한(infirmity)’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육체 가운데에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성장하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약함’, 혹은 ‘부족함’의 상태로 인하여 인간은 누

구나 어린이든 성인이든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인간이해는 교회가 그러한 인간을 평생 교육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교육목회적 출발점이 되었다.

2.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이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육체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요, 약하여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해되었다면, 교회는 일차적으로 그와 같은 인간을 교육적으로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으로 이해되었다. 그는 인간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였는 바, 그의 「기독교강요」 4권 1장 5절의 말을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만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신다. 이 교육의 방법은 목자들이 하늘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형식을 통해서이다. 또한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그 목적을 위해 세워진 교사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도록 하셨다.”

위의 인용구에는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교육하는 것을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하는 칼빈의 이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일순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들이 교회의 교육을 통해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양육을 위탁받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piourm omnium mater*)’ 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여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를 잉태하고, 가르침과 양육을 주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어머니적인 교회의 교육적 돌봄은 신자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강요」 4권 1장 1절에서 “교회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이일 동안에, 교회에 의하여 양육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머니적인 보살핌으로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가 평생 이 “어머니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기독교강요」 4권, 1, 4).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칼빈의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개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잘 알려진 대로 칼빈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불가시적 교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택된 자들의 무리”(electorum turba)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독교강

요」 4권, 1, 2).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서만 그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라고 하였다.

그와 나란히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앙고백, 세례, 성만찬, 말씀 안에서의 일치, 그리고 성직이라고 하는 외면적인 조건을 갖춘 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가시적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가시적 교회’는 “위선자와 아심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어서 ‘가시적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곧 ‘불가시적 교회’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시적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칼빈은 바로 교육적 이유에서 찾고 있다.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서 신자를 잉태하고 양육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시적 교회의 두 가지 표지가 “말씀의 선포와 청종”, “성례의 집행”이라고 하였다. 이 두 표지는 모두 말씀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설교가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에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모두 말씀의 선포다. 그런데 이 둘이 왜 중요한가? 칼빈은 그 둘은 모두 말씀의 열매와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말씀이 열매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그것이 신자들의 성화와 신앙 성장을 효과적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둘, 즉 말씀의 선포와 성찬의 집행이 결실을 가져오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존재적 의미를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봄으로써 교회의 모든 사역을 교육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교육목회적인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목회자로서의 목사

교육하는 곳으로서의 교회 개념에서 칼빈이 가장 주목하는 직책은 ‘목사’다. 그는 물론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사증적 항존직을 말하면서, 사증직간의 개별적 기능과 협력적 활동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목사가 교육목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의 두 가지 표지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의 활동이 칼빈에게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적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는 좁은 의미로 사증직의 하나로서의 ‘교사’라는 직책을 말하기도 하였지만, 목사를 교사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목사의 직분에는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행한다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법은 공개적인 강론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기독교강요』 4권, 3, 6). 이 인용구에 나타난 대로 칼빈은 목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공적 예배

시의 설교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공적·사적인 장소의 가르침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이해하였고, 그 모든 활동이 곧 가르치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에게 목사는 그 자체로 가르치는 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또 항존직의 하나로서의 좁은 의미의 교사와 목사의 직무를 서술하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사들은 치리(disciplina)와 성례의 집행, 훈계와 권면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여서 신자들에게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시켜 주는 일만을 맡는다. 목사는 이 두 임무를 겸한다"(『기독교강요』 4권 3, 4). 이 인용구에 나타난 대로 교사가 하는 일은 신자들에게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세우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런데 칼빈은 목사가 바로 그와 같은 교사의 일을 겸하여 한다고 하였다.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순수한 교리(doctrina)를 세우는 역할을 교사와 함께 담당한다는 것이다.

목사는 또한 그 말씀이 교인들의 삶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삶 교육'인 '치리(disciplina)'의 활동에도 동참해야 한다. 칼빈에 의하면 '장로'는 평신도 중 선택된 사람들로서 "도덕적인 견책과 치리를 시행하는 일"을 맡는다고 하였는데, 목사는 이 일을 장로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 당시 목사는 제네바 시의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 장로가 중심이 된 '컨시스토리(Consistory)'의 당연직 회원으로 교인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예배와 교리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지, 성례전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이웃과의 삶에서 선한 증거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았을 때, 칼빈이 목사로부터 기대했던 것은 통전적 교육목회의 책임자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교사와 더불어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여 순수한 교리(doctrina)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장로와 함께 교인들의 삶을 교육하여 그들이 예배와 성례전, 교리와 말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증거를 보이는지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베버(O. Weber)는 칼빈에게서 사중직이라는 직제는 네 개의 분리된 직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수행하는 통합적 목회활동에 '교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동참하여 각기 특별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라고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목사는 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총체적 교육목회자였다고 할 수 있다.

III. 칼빈의 교육목회적 실천

칼빈은 그의 교육목회적인 시각을 그의 제네바 교회에서의 목회 실천에서도 일관되게 구체화시켰다. 그는 제네바 교회의 모든 회중들을 교육목회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였다. 그는 교육목회적 실천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천하였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을 신자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는 것과 다음으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 전자는 주로 아직 입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후자는 입교 후의 성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1)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칼빈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개념은 교회, 가정, 학교를 세 중심적인 장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교회에서는 교리문답(Catechesis)를 중심으로 하는 세례와 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은 '작은 교회' (*parvae ecclesiae*)로서 교회의 위탁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는 교회의 위탁을 받아 교회와 세상에서 필요한 기독교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는 나름대로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 셋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통합적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교회교육 개념이 교리적인 교육과 경건한 삶,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개념이었음을 확인한다.

2) 설교와 교육(독트리나)

칼빈이 교육목회적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 실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칼빈은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활동을 교육과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설교'도 신자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독트리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성서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시사건,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것으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칼빈은 이 독트리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자들의 신앙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독트리나가 설교뿐만 아니라 교리문답, 강요(*Insitutio*), 더 나아가 성례전을 통해서도 매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독트리나가 바로 매개되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하고 설득 가능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삶을 형성하는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독트리나는 — 라틴어 어원이 이마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 그 자체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독트리나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설교도 칼빈에게 교육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P. 부룬너는 그의 설교를 '교육적 설교'라고 하였다.

3) 치리(디시플리나)

칼빈은 치리를 가리켜 "열쇠의 권한과 영적 재판권에 의존한다" ("기독교강요" 4권, 12, 1)고 하였고, 이를 주로 견

책과 출교라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치리는 대체적으로 교회의 견책 기능으로 생각되어 왔고, 우리말에서도 '치리'나 '권징'과 같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디시플리나(disciplina)'라는 라틴어 단어는 '훈육', '훈련'을 의미하는 교육적 용어이고, 실제로 칼빈은 교인의 삶 전반을 교회가 동반하고 교육한다는 의미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치리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강요」 4권 12장 1절을 '디시플리나'와 '가르침'을 의미하는 '독트리나(doctrina)'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르침(doctrina)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치리(disciplina)는 교회의 힘줄이다."

칼빈에게 치리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삶과 연결시키는 교회의 생활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시플리나는 말씀과 연결되는 삶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단순히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인이 그 의무를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점잖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에" 「기독교강요」 4권 12, 2 기꺼이 충고해야 하고, "설교와 교훈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에 각 가정에 다니면서 충고하고 경고"하는 과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디시플리나, 곧 치리다. 따라서 치리가 있을 때에 "목사의 교훈(독트리나)에 힘과 권위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치리는 교회의 두 표지인 말씀선포와 성례가 바른 기능을 담당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독트리나, 즉 말씀의 교육을 실천적 교육으로 보완하는 삶 교육적 차원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성인 카테쿠메넌, 킨그리케이션

칼빈은 또한 제네바 교회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카테쿠메넌을 개설하였다. 카테쿠메넌은 주로 세례와 입교인을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교육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칼빈은 입교한 성인들도 계속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독트리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성인 카테쿠메넌을 설치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성인 카테쿠메넌에서 더 발전된 단계로 킨그리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지도자 수업이요, 신학 수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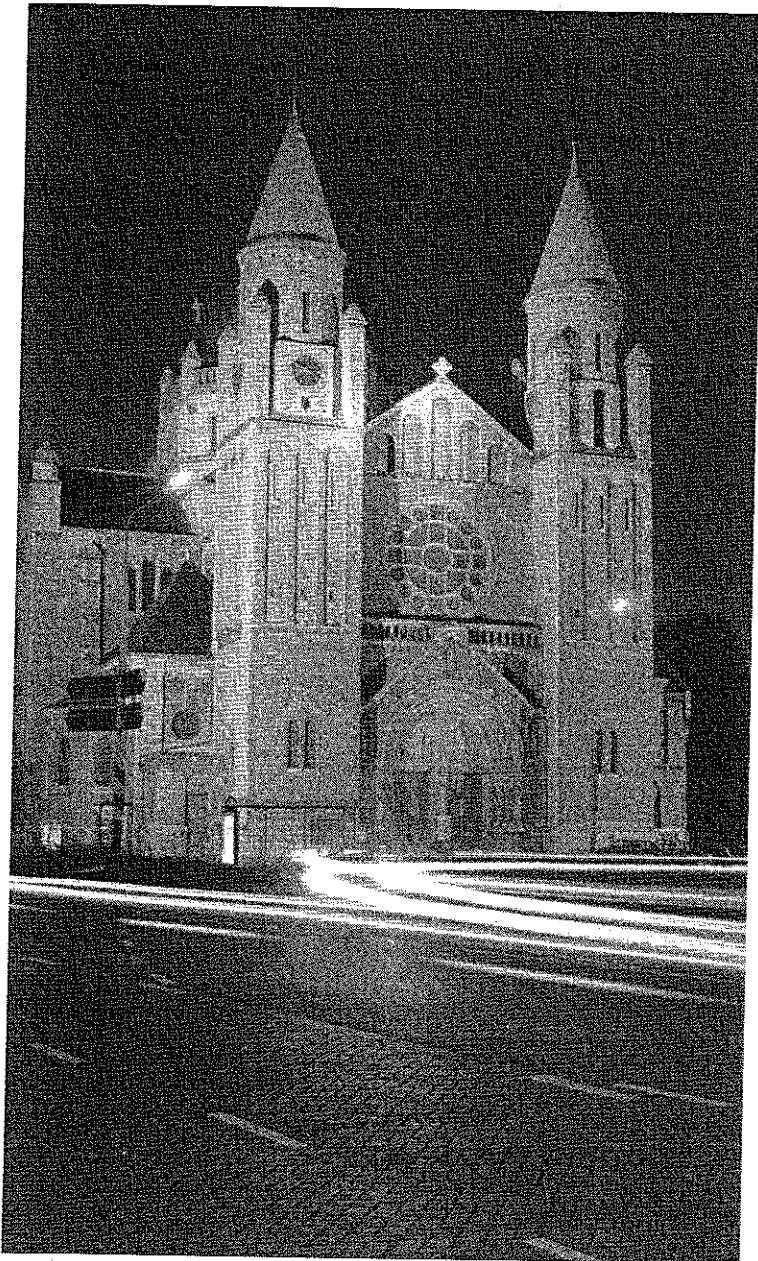
앞에서 살핀 것처럼 칼빈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회중 전체의 신앙생활을 교육적으로 동반하는 교육목회적인 실천을 제시하였다.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에는 신자의 "계속적인 신앙의 성숙"이 핵심 개념이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목회 전체의 과정, 즉 설교에서, 치리에서, 성례와 행정 속에서 추구해 나아가는 교육목회적인 실천을 제시하였다.

IV. 나오는 말 - 칼빈의 교육목회의 현대적 적용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은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교육에 시사해 주는 바 의미가 크다. 물론 칼빈이 처해

있던 컨텍스트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는 서로 다르지만 '종교개혁' 자체가 개혁교회에 언제나 초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이 개혁교회의 교육에 '뿌리'로서 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은 개혁교회의 교회교육이 "교육목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교육의 장으로 이해하고, 목사는 이를 위해 세움 받은 교사라는 이해를 제시했다. 이 말은 목사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성장과 성화를 이끄는 교육적 활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모든 활동, 즉 설교, 가르침, 예전, 권징 등 모든 목회적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활동, 즉 "교육목회적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목회적' 개념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 즉 교회의 교육이 교회학교에 국한되고,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교회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은 극복되어야 한다.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 안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상에 사는 동안 평생 어머니 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학생이다. 따라서 교회는 신자의 평생을 '말씀의 가르침', '성례전', '말씀의 삶 교육'으로 동반해야 하며, 목사는 교회 전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통전적 교육목회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난 선교 120여 년의 역사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작스런 양적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계토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는 양적인 성장도 감소로 돌아서서 성장의 잠재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교인을 만드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그들을 기독

교인다운 기독교인, 내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이다. 칼빈의 '교육목회'의 개념은 교회가 케리그마와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의 모든 교회적 활동을 교육적으로 기획하고 인도함으로써 신자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의 새움을 이끌어야 할 교육목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은 교육목회의 주체는 '하나님' 이고,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목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의 교육목회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교육목회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목회를 의미한다. 그의 교회의 표지가 '말씀의 선포와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의 집전인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교육목회자, 즉 교사와 교수직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따라서 교육목회는 그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수단에 의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오늘날 소위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유행이다. 수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매체들을 동원해서 엔터테인먼트처럼 교육함으로써 학생을 즐겁게 하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은 그 어떤 화려하고 흥미롭게 하는 교육 행위도 말씀의 스스로 가르치는 힘보다 선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변화시키는 힘에 의지하지 않는 기독교교육은 칼빈적 개념에서 볼 때 참 기독교교육이 될 수 없다. 교사는 '말씀'의 변화시키는 힘에 의지하여 교육하고, 학생은 말씀의 생명력으로 배우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많은 매체가 발달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현대의 기독교교육 상황에서도 언제나 진리이고,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할 '기본'이다.

'말씀'에 기초하는 교육목회의 개념이 시사하는 것이 "교사와 교수직의 권위가 말씀에 있다"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교사는 철저히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직은 목사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에게로까지 분산되어 있다. 특별히 주일학교 운동의 영향을 받은 미국과 한국적인 교회교육의 상황에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교육을 담당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등장한 '가정교회' 같은 형태도 평신도 중심의 교육구조를 이루고 있다. 칼빈적 교육목회 개념에 의하면, 그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예배의 설교든지, 사적 가르침이든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의 설교나 가르침이든지, 모든 교회의 가르침은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칼빈의 교육목회 개념은 평신도 지도자든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가르침에 참여하는 교수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 훈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EM**